

유비, 유기공자 - 내향난초 기질

김종구소장 상담학박사 한국성격검사연구소 <http://www.4gunja.com> 02-334-4443

겸손한 리더, 섬기는 리더십을 발휘한 유비를 사군자 기질검사로 분석한다면 내향난초 기질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유비의 장점은 다른 사람들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군림하기 보다는 천천히 가더라도 함께 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리더였다는 것이다. 그는 삼국지 인물들 중 가장 부하들을 편안하고 인격적으로 대한 리더였다. 그는 덕으로 다스리기 원했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리더가 되기 원했다. 제갈량, 관우, 장비, 조자룡 같은 인물들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유비를 따른 것은 유비의 겸손한 태도가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겸손하며,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수용하고 순응적이며, 현실주의자이며, 의리를 지키며, 때로는 연기를 잘했던 유비, 하지만 어리석고, 근시안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잘 속았던 유비의 삶을 통해 내성난초 기질 리더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가보(家寶) 보다 현재의 필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질

유비는 자신이 힘써 모은 돈으로 어머니를 위해 낙양선에서 거금을 투자하여 차(茶)를 산다. 하지만 황건적의 습격을 받게 되고 구입했던 차와 가보(家寶)인 칼을 빼앗긴다. 장비의 도움으로 차와 칼을 다시 찾은 유비는 고마운 마음에 칼을 장비에게 선물로 주고 집으로 돌아온다. 대나무 기질인 어머니는 차(茶) 때문에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칼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온 유비에게 실망하여 비싼 차(茶)를 연못에 던져 버린다. 눈에 보이는 것을 우선했던 유비는 대나무 기질인 어머니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중요성과 인생의 의미를 비싼 대가를 치루며 배우게 된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응하며 기다리는 기질

한 때 자신을 가르쳤던 노식 장군이 모함에 빠져 잡혀가는 행렬을 만났을 때 부하 장수

들은 노식 장군을 구하자고 했지만, 유비는 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어기기 보다 순응하여 다음 기회를 기다리는 것을 선택을 한다.

황건적을 토벌하는데 공을 세웠던 다른 장수들은 조정으로부터 벼슬을 받았다. 하지만, 인맥이 없고, 뇌물을 바치지 않았던 유비는 큰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벼슬을 받지 못하고 낙양성 밖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십상시(十常侍)들의 부정부패가 심했던 상황에서 유비는 결국 아취현이라는 조그마한 고을을 맡게 된다.

원소와의 전쟁 중에 공손찬의 부하였던 조자룡을 만나게 된다. 그 때 조자룡은 유비의 인덕을 보고 유비의 부하가 되기 원한다. 하지만, 유비는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말로 조자룡을 받아들이는 것을 뒤로 한다. 결국 공손찬이 죽은 이후 조자룡은 유비를 찾아 가게 된다.

내향난초 기질이었던 유비는 모든 일을 순리에 따라 물 흐르듯 해결하기 원했다. 조금 한 마음에 뇌물을 바치거나 무력과 권력으로 환경을 타파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상황이 자신에게 주어질 때 움직이는 사람이었다. 이러한 유비의 특성 때문에 유비는 다른 사람들보다 늦은 나이인 사십대 후반에야 서주태수가 될 수 있었다. 그것도, 자신이 개척한 것이 아니라, 공짜로 주어진 것이었다.

겸손한 리더

조조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서주를 포위했을 때 서주 태수 도겸은 다른 제후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다른 제후들은 조조와의 싸움에 휘말리는 것을 두려워하여 거절했지만 유비는 도겸을 돕기 위해 찾아간다. 불의한 고통을 당하는 도겸에게 작은 힘이나 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를 돕게 된다. 이 일로 인해 서주 태수 도겸은 죽을 때 유비에게 서주 태수의 인감을 건네준다. 하지만, 유비는 서주태수 자리를 받을 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말로 결코 받지 않고 거절한다. 도겸이 죽은 후 서주 원로와 백성들이 몰려와 유비에게 간곡하게 서주 태수 자리를 수락해 줄 것을 애원했을 때 비로소 받아들여지게 된다.

연주성을 조조에게 빼앗긴 여포는 갈 곳이 없어지자 서주성의 유비에게 가게 된다. 다른 장수들은 자신의 주인을 두 번이나 배신한 여포를 거절했지만, 유비의 고집으로 여포를 받아들인다. 그리고 유비는 여포에게 자신이 가진 서주태수의 인감을 건넨다. 자신보다 나이가 많고 더 강한 용사인 여포가 서주성을 다스리는 것이 더 어울린다는 말로 건넨다. 그러나 여포는 장비의 방해로 서주태수 인감을 받지 못한다.



유비는 제갈량을 찾아가는 과정에서도 그의 겸손함이 잘 드러난다. 장비와 관우는 제갈량을 직접 찾아갈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오게 하자고 제안한다. 하지만, 유비는 선생님을 모시러 가는데 오라 가라 할 수 있느냐며 우리가 직접 찾아가는 것이 예의라고 한다. 장비가 제갈량의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고 질문하자 유비는 스무 일곱살이라고 했다. 그 때 유비의 나이 마흔 일곱이었다. 장비는 황당해했지만, 유비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였다. 추운 겨울 유비는 제갈량을 만나기 위해 삼고초려(三顧草廬)한다. 제갈량을 만난 유비는 천하를 구하고 백성을 평안케 할 수 있는 가르침을 달라고 부탁한다. 제갈량은 유비에게 천하삼분지계(天下三分之計)를 설파한다. 제갈량이 말한 천하삼분지계란 조조의 위(魏)나라와 손권의 오(吳)나라를 지금 상대하는 것은 유비에게 벅찬 일이기 때문에 이곳 형주에서 군사력을 기른 이후 서촉을 얻으면 힘을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형주는 힘을 비축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이지만, 현재 형주를 다스리는 유표는 우유부단하여 형주를 지킬 그릇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서촉 역시 41주의 광대한 영토를 소유하고 있지만, 서촉을 다스리는 유장은 덕이 부족한 사람이다. 만일 유비가 형주를 얻고 서촉을 얻는다면, 위나라와 오나라에 버금가는 나라를 이룰 수 있으며, 그 후에 손권과 손을 잡고 조조와 대항한다면 한 왕조를 부흥시키고 백성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겸손했던 유비는 추운겨울날 삼고초려 하는 정성을 보이며 제갈량을 설득한다. 만일, 유비가 매화기질이나 대나무 기질이였다면 제갈량이 아무리 뛰어난 인재라 할지라도 스무살이나 아랫사람을 세 번씩이나 직접 찾아가는 수고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제갈량의 말대로 유비는 형주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 하지만, 유비는 형주를 얻는데 실패한다. 형주의 유표가 유비에게 형주를 맡아줄 것을 요구하지만, 유비의 겸손이 거절하게 만든다. 제갈량과 부하장수들이 형주를 맡을 것을 강력하게 권유했지만, 유표의 아들이 있는데, 자신이 맡는 것이 옳지 않다고 거절한다. 유표가 죽고 그의 아들 유종이 형주태수가 되지만, 조조가 침범하자 유종은 조조에게 항복한다. 제갈량은 유비에게 조조에게 항복한 유종을 치고 형주를 탈환할 것을 제안한다. 하지만, 유비는 자신이 살자고 유표의 아들 유종을 칠 수 없다고 결정한다. 그로인해 유비는 조조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고 이 과정에서 그를 따르던 수많은 백성들은 죽임을 당한다. 유비의 경우처

럼 겸손한 리더는 그의 겸손함 때문에 주위 사람들을 돌이킬 수 없는 곤경에 빠뜨리는 경우가 있다.

유비는 조조에게 서촉41주를 바치기 위해 찾아갔다 매를 맞고 온 장송을 겸손과 겸양으로 대접한다. 장송은 조조와 그 부하들이 자신에게 대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유비의 겸손한 태도와 인간미에 감복하여 조조에게 바치려고 준비했던 서촉41주 지도를 유비에게 바치게 된다. 장송은 유비가 서촉을 가지러오면 넘길 준비를 하겠다고 약속한다. 장송은 서촉을 유비에게 넘길 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겸손한 유비는 서촉에 입성하는 것을 또 고민한다. 그러나 제갈량과 방통의 조언에 따라 서촉으로 입성하게 된다.

거절을 잘 못하는 기질

내향 난초기질의 가장 큰 단점 중의 하나는 우유부단함이다. 거절해야할 상황에서 거절하지 못하고 어떻게 되겠지 라는 식으로 넘어갔다 후에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는 경험을 종종 하게 된다. 유비는 흥부옹을 사귀고 있었지만, 후에 유비의 후원자였던 미축의 소개로 여동생 미소정을 소개 받는다. 거절 해야할 상황에서 거절을 하지 못했던 유비는 결국 후에 탄로가 날 때까지 흥부옹과 미소정을 오고가는 양다리 연애를 한다. 결국 양다리 연애는 발각이 된다. 유비는 두 사람 중 어느 한 쪽에 이별을 고하지 못한다. 결국 유비는 두 사람과 한 날에 결혼하게 된다. 오늘날에는 좀 곤란한 일이 될 것이다.



의리를 지키는 기질

난초기질의 장점은 의리파라는 것이다. 이들은 의리 때문에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는 사람들이다. 유비는 종종 형제는 수족과 같고 부부는 의복과 같다(兄弟 爲手足 夫婦 爲衣服)는 장자의 말을 인용하며 도원결의(桃園結義)에서 맹세했던 의리를 강조했다. 유비는 장비가 여포에게 서주성을 빼앗겼을 때 의리를 강조했다. 장비가 서주성을 빼앗긴 책임을 지고 자결하겠다고 했을 때 유비는 도원결의(桃園結義)의 맹세를 되새기며 장비를 끌어안는다.

또한 유비는 관우의 원수를 갚기 위해 오나라로 직접 원정을 떠난다. 제갈량은 유비의

결정을 반대한다. 대나무기질인 제갈량은 유비의 오나라로 원정은 사사로운 정이라고 해석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오나라를 치는 것이 아니라, 오나라와 손을 잡고 위나라를 대항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의리를 중시하는 유비는 관우를 죽인 오나라와 연합할 수 없었고 한 하늘 아래 같이 사는 것도 허락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유비는 오나라 출병을 강행한다. 그리고 유비는 관우의 위급한 소식을 듣고도 돕지 않은 양아들 유봉을 처형한다. 관우의 원수를 갚기 위해 치룬 오나라와의 이릉대전은 유비의 참패로 끝난다. 처음에는 유비군이 파죽지세로 오나라를 제압해 갔다. 하지만, 오나라 육손 장군의 등장으로 전세는 역전되었다. 이십대의 젊은 육손은 유비와 전면전을 피하고 방어만 했다. 그리고 여름이 되어 날씨가 더워지자 유비군은 숲속에 진을 구축하게 되었다. 육손은 화공을 가하여 숲속의 유비군을 전멸시킨다. 제갈량이 함께하지 않은 유비 진영은 숲속에 진을 치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여 이릉전투에서 참패를 당한다.

조자룡이 조조의 팔십만 대군 속에서 아들 유선을 구해왔을 때 유비는 유선을 땅바닥에 던져 버린다. 옆에 섰던 군사들이 놀라워하자 유비는 '조자룡 같은 장수는 다시 얻을 수 없다. 그런데 아이는 다시 낳으면 되는데, 이런 어린 아이 때문에 조자룡 같은 훌륭한 장수를 잃을 뻔 했다. 그래서 아들이 미운 생각이 들어 그랬다. 조자룡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말한다. 조자룡은 유비의 말을 듣고 충성을 맹세한다. 유비는 가족만 큼이나 의리를 중시 했다.

예술적 재능을 가진 기질

유비는 온화하고 여리지만, 연기를 잘했다. 조조가 유비의 진심을 알아보기 위해 초대했을 때 그는 바보연기를 했다. 유비의 바보 연기에 속아 조조는 유비에 대한 경계를 늦추게 된다. 또한 유비는 조조에게 공손찬의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군대를 빌려줄 것을 요청한다. 공손찬은 자신에게 형제와 같은 사람이라는 말로 조조를 속여 오만의 군대를 빌리게 된다. 유비가 군대를 빌리자마자 허도를 재빨리 빠져나간다. 유비에게 속은 것을 안 조조는 허저를 보내 유비를 잡아오라고 한다. 하지만, 바보 같았던 유비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너무도 당당한 태도로 허저를 조조에게 다시 돌려보낸다.

유비의 연기력은 손권의 여동생 손상향과의 결혼 과정에서도 잘 발휘된다. 손권의 어머니 오부인과의 면접에서 타고난 연기를 하여 오부인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결국 손상향을 데리고 형주로 떠나다. 손권의 군사들이 뒤쫓아 오자 유비는 손상향 앞에서 애걸복걸하는 우는 연기를 하여 손상향으로 하여금 군사들을 돌려보내도록 하여 죽음의 상황을 넘긴다.

오나라 손권은 형주를 치기위해 계략을 짜고 노숙을 유비에게 보낸다. 노숙이 형주를 기습하려는 목적으로 촉을 치기 위해 형주를 지나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자 유비는 노숙에게 속는 연기를 한다. 결국, 손권의 군대를 이끌고 온 주유는 유비의 연기에 속아 형주에 들어왔다 섬멸되게 된다.

유비는 그가 가진 뛰어난 연기력으로 위기상황을 여러 차례 넘기는 재치를 발휘한다. 이런 유비를 조조는 쥐새끼 같은 놈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외유내강의 미덕을 가진 사람

유비는 겉으로 보기에 부드럽고 어리석은 사람이었다. 그런 유비의 모습이 다른 제후들로 하여금 경계심을 풀도록 만들었고, 유비가 어려울 때 도와주고 싶은 불쌍한 마음이 들도록 했다. 유비는 갈 곳이 없을 때마다 다른 제후들이 그를 받아 주었다. 유비가 국 구 동승이 주축이 된 조조 암살에 동참했다는 사실을 안 조조의 침략을 받았을 때 유비는 원소에게 몸을 의탁한다. 원소는 기꺼이 유비를 환대한다. 유비가 여포에게 성을 빼앗기고 갈 곳이 없었을 때 유비를 받아준 사람은 조조였다.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고,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순응할 수 있는 것이 내성난초 기질의 특성이다.

전략가 대나무 기질의 참모가 필요한 리더

유비가 삼국지의 중심인물이 될 수 있는 것은 그에게 내향대나무 기질의 참모인 제갈량이 있기 때문이다. 길을 잃은 유비는 어느 날 사마휘(司馬徽)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사마휘는 유비가 계속 좇기는 것은 참모다운 참모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유비는 자신에게 관우와 장비, 조자룡 같은 유능한 참모들이 있다고 말하자, 사마휘는 뛰어난 장수는 있지만, 전략가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말해준다. 그리고 유비가 만일 봉룡(제갈량)과 봉추(방통)를 얻으면 천하를 얻게 될 것이라고 알려준다. 그러나 사마휘는 봉룡과 봉추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는다. 유비는 그때부터 인재를 찾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얻은 인물이 서서(徐庶)이다. 하지만, 서서는 얼마 되지 않아 조조의 계략에 속아 조조에게 가게 되는데, 그가 떠나기전 마지막으로 유비에게 추천한 인물이 제갈량이다. 내성대나무 기질인 제갈량은 뛰어난 지략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세상을 뒤로하고 와룡언덕에서 동생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은둔생활을 하고 있었다. 겸손했던 유비를 만난 제갈량은 자신의 지략을 유비와 함께 펼칠 결심을 한다. 현재를 사는 내향난초 기질인 유비에게 미래지향적이고 뛰어난 분석가인 내향대나무 기질 제갈량은 최고의 참모가 되었다.

유비가 삼국지의 핵심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어주는 참모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능력적인 측면에서 유비와 조조를 비교해 보면 게임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유비는 조조와 대등하게 대항 할 수 있었다. 그에게는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어주는 제갈량이라는 대나무 기질의 전략가 참모가 있었기 때문이다. 내성난초 기질이 대나무 기질의 신뢰를 받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비는 제갈량의 마음을 전적으로 얻었다. 그것이 유비가 가진 최고의 능력일 것이다.

목표를 잃으면 한량이 되기 쉬운 기질

형주 태수 유표(劉表)에게는 유기와 유종 두 아들이 있었다. 유표는 형주성을 두 아들보다 유비에게 물려주려 했다. 하지만, 유비가 거절하자 큰 아들 유기에게 물려 줄 것을 유언했다. 유종의 어머니 채씨 일가족의 계략에 의해 유표의 유언은 왜곡되고 작은아들 유종에게 형주태수 자리가 계승된다. 내성 난초기질인 유기는 천성이 여러고 착했다. 동

생에게 자리를 빼앗기고 삶의 목표를 잃은 유기는 강하에서 술과 여자에 빠져 산다. 성품이 온화하지만 어리석었던 유기는 후에 노숙이 유비에게 형주를 돌려달라고 했을 때 노숙의 입을 막기 위해 제갈량에게 이용당하기도 한다.

내향난초 기질의 단점은 장기적인 미래에 대한 비전이 약하고 현재에 안주하는 스타일이다. 현재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꿈을 잃으면 의욕을 상실하고 방탕한 삶에 빠지기 쉬운 스타일이다.

김종구소장 상담학박사 한국성격검사연구소 <http://www.4gunja.com> 02-334-4443